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 GE, 대한스키협회 국가대표팀 대상 'GE 스포츠 리더십 캠프' 첫 개최

- GE의 '크로톤빌 리더십'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내 스포츠 선수와 코치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향상 지원
-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물론 리더십 역량 후원까지 대한스키협회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후원사 역할 충실히 수행

2017년 5월 15일, 서울 - 올림픽 글로벌 파트너 GE는 지난 10일 대한스키협회(회장: 신동빈) 소속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 70여명을 대상으로 GE의 '크로톤빌 리더십' 커리큘럼을 활용한 'GE 스포츠 리더십 캠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했다. GE는 대한스키협회의 국내 공식 후원사로서 통상적인 재정 후원을 넘어, GE의 글로벌 자산을 활용한 기술 및 리더십 개발 후원 등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과 리더십 개발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GE 스포츠 리더십 캠프'는 GE의 크로톤빌 리더십 프로그램을 국내 스포츠 인재의 니즈에 맞춰 새로 구성된 행사로서, 선수와 코치의 참여를 유도하는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자존감,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자기 인식을 통한 리더십 스타일을 알아보는 '개인 리더십' 세션, 스트레스 관리 등 21세기 리더십에서 요구되는 '감정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한 팀 환경 조성 방법' 등을 공유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필요한 글로벌 스포츠 리더십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 선수는 "쉽게 접하기 힘든 글로벌 수준의 특화된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교육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 경기에서도 개인과 팀의 최선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스키협회 국가대표팀 이상현 감독은 "코치뿐만 아니라 선수들 역시 평소 스스로를 다스리고 더 큰 기량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내면적 리더십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팀 전체가 보다 진취적인 글로벌 스포츠 리더로서의 자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성욱 GE 코리아 총괄사장은 "글로벌 인재사관학교인 GE의 크로톤빌 리더십 프로그램은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들의 글로벌 스포츠 리더십 향상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개최 배경을 강조했다.

GE는 2005년부터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운영에 필수적인 첨단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국에서는 대한스키협회와 지난 9월 종합후원 협약 체결을 맺고 선수들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선전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GE의 산업인터넷 클라우드 기반 운영 플랫폼인 '프레딕스'로 훈련 기록을 분석하고,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및 기록 영상을 제공하는 '모션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의 건강 및 훈련 성과 지표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키, 스노보드와 같은 종목의 특성상, 훈련하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부상을 방지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GE 크로톤빌은 1956년 미국 뉴욕주에 개소한 미국 최초의 기업 사내 대학이며 전략, 리더십 및 혁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 육성하는 GE의 글로벌 리더십 개발 센터다. 오늘날 GE가 글로벌 인재사관학교라는 명성을 획득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전세계 정부 및 기업의 경영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

GE에 대하여

GE는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 기업(Digital Industrial Company)'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계 및 솔루션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GE의 산업 기계와 솔루션들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대응과 미래 예측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합니다. GE는 "GE 스토어(GE Store)"라는 글로벌 지식 공유 체계를 통해 GE가 보유한 기술과 시장, 지식을 전사적으로 활용합니다. GE는 인재와 서비스, 기술과 규모를 바탕으로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www.ge.com

한국에서는 1976년 공식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상호 협력하며,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500명의 직원들이 발전, 석유와 가스, 전력 송배전, 항공, 헬스케어,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ge.com/kr, www.geblog.kr, www.gereports.kr) 참조

문의:

GE코리아

정혜리 과장 (02-6201-4025)

더 시그니처

우수미 부장 (02-6951-3562)

윤하은 대리 (02-6951-3559)

김현경 컨설턴트 (02-6951-3560)